# 시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전주 만든다

전주시, 국제안전도시 만들기 실무분과위원회 간담회 가져… 교통안전, 재해ㆍ재난예방분야 준비

시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도시를 의미하는 국제안전도시 공인에 나선 전 주시가 교통안전 전문가와 안전 유관 기관 관계자들과 머리를 맞냈다.

전주시는 12일 시청 회의실에서 교통안전과 재해·재난예방분야 유관기관 관계자, 관련 전문가 등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한 전주 만들기를 위한 국제안전도시 만들기 실무분과위원회 간담회를 가졌다.

국제안전도시는 지역사회의 손상으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지역공동체가 협력해 온 노력을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것을 의미한다.

이날 간담회는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위한 최종관문인 현지실사가 오는 5월 초로 예정된 가운데, 전주시와 유관기 관, 시민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주시 국제안전도시 교통안전, 재 해·재난예방분야 실무분과위원회가 긴밀한 혐의를 통해 평가가 원활히 진 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기 위한 자리 다.

시는 유관기관과의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Delta$ 지역사회 안전증진 관계자와의 미팅  $\Delta$ 안전도시사업 보고회 및실사 평가회  $\Delta$ 안전증진 프로그램 현장방문 등으로 진행되는 현지실사를 완벽히 준비해서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받을 계획이다.



전주시는 12일 시청 회의실에서 교통안전과 재해·재난예방분야 유관기관 관계자, 관련 전문가 등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한 전주 만들기를 위한 국제안전도시 만들기 실무분과위원회 간담회를 가졌다.

이에 앞서, 전주시 국제안전도시 실 무분과위원회는 그간 민·관 협력을 통해 안전사업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안전도시 사업을 지속해왔다.

교통안전사업으로는 교통약자 지원, 교통안전시설 확충, 자전거, 교육 및 홍보 등이며 재해예방분과사업으로는 화재예방, 재난협업체계 구축, 기타 안 전점검 등으로 크게 구성되어 추진하 고 있다. /김민근 기자

#### 전주시, 감염병 매개해충 방제

전주시가 각종 감염병의 원인이 되는 진드기와 모기 등 유해해충 박멸에 1.1세다

전주시보건소는 올해 방역인원 67명과 방역장비 152대, 방역차량 10대, 포충기 308대를 투입할 계획이라고 12일밝혔다.

대표적으로, 보건소는 완산칠봉과 모 악산, 황방산, 기린봉, 건지산 등산로 에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 총 5대를 설치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보건소는 2개반 4명으로 구성된 방역기동반을 편성, 지난 3월 부터 오는 11월까지 Δ봄철 정화조 유 충구제사업 Δ여름철 방역 민원처리 Δ가을철 마무리 소독을 전담한다.

여름철(6월~9월)에는 특별방역대책으로 초미립 방역소독 차량 9대를 임차해 27개 코스를 3일 간격으로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각 동 주민센터에는 1~3명씩 총 54명의 방역 인원을 배치해 골목길과 차량진입 불가지역, 취약지역에 대한 방역소독을 실시키로 했다. (김민근 기자

# 전주, 모든 자전거도로 '안전하게' 만든다

#### 8억 투입 일제정비 추진… 자전거 횡단도 추가 설치 · 턱 낮추기 · 노면정비 등

전주시가 시민들이 생태교통수단인 자전거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타고 다 닐 수 있도록 자전거도로를 대대적으 로 정비키로 했다.

특히, 용머리로와 서원로, 효자로에 는 자전거를 탄 상태에서 횡단보로를 건널 수 있는 자전거 횡단도가 설치되 고, 턱 낮춤과 노면보수 등 노선별 일 제정비가 추진된다. 또, 올 상반기 중 에는 자전거를 타고 전주천과 삼천 자 전거도로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천 진출입로도 설치된다.

시는 시민들의 생활 속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총 8억여 원을 투입해 자전거도로에 대한 일제정비 를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전주지역 자전거 도로는 △자전거 전용도로 11.7km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333.9km △하천변 겸용도로 등 기타 63.3km 등 총 409km가 지정돼 있다. 시는 이번 일제정비를 통해 자전거 회다도를 추가 설치하고 자전거드로

횡단도를 추가 설치하고, 자전거도로 턱 낮추기와 노면정비 등을 실시할 계 획이다. 또,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와 하천자전거도로에서 보행자와 자 전거의 상충, 이면도로와의 접속지점 의 자전거도로 단차와 단절로 인한 불 편과 교통사고 위험을 없애기 위한 정 비도 추진된다.

자전거 횡단도가 설치되면,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어 편리해 지고, 일반 보행자들과 분리된 횡단도 설치로 보행자의 안전도 확보된다.

또한, 시는 이번 일제정비를 통해 자전거 이용자들이 큰 불편을 겪는 이면 도로와 접속지점의 턱을 평탄하게 조정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보행자와 자전거의 통 행로를 명확히 구분하고, 인도 내 차 량 불법 진입을 방지하기 위한 볼라드를 설치해 겸용도로에서의 접촉사고 등의 안전사고를 예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그간 계단 위주로 돼있는 전주천·하천 진출입로에도 자전거를 타고 오르내릴 수 있는 경사 로를 설치해 일반 자전거도로와 하천 변 자전거도로와의 진출입이 편리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향후에도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탁낮추기와 노면 정비를 실시하고, 자전거 보관대와 같은 자전거 이용시설도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동시에, 자전거시범학교 통학로에 자전거도로를 개설하고, 완산체련공원 산악자전거 연습장과 전주시자원봉사 센터 옆 전주천 생태자전거 놀이터 등 자전거 이용시설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김민근 기자



### 전북대 '블록체인 기술과 산업 변화' 포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와 함께 압호 화폐에 대한 관심은 국내를 넘 어 세계적으로도 소위 광풍이라 할 만하다. 이에 여러 압호화폐의 보안 기술로 사용되고 있는 '블록체인'은 머지않은 미래 산업 생태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전북대학교 이노폴리스캠퍼스사업단이 12일 블 록체인 기술에 대한 대중적 이해와 적용 분야, 전략에 대해 논의하는 포 럼을 개최해 이목을 끌었다.

'블록체인기술과 산업 생태계 변화'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포럼에는 전북대와 전주대 이노폴리스캠퍼스 사업단 관계자와 전북 도내 창업자 및 화생 등이 참석했다.

이날 포럼에서 김순태 전북대 교수 (소프트웨어공학과)는 블록체인 기 술의 이해와 적용 분야, 그리고 전략에 대해 설명했다. 김 교수 "블록체인의 가장 큰 장점은 데이터 무결성을 보장해 신뢰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직접 거래가 가능한 것이 장점이다."라고 소개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 암호 화폐들이 널리 활용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블록체인의 중요성은 더더욱 커질 것."이라며 "IT 기술, 비즈니스모델의 발전 등에 따라 다양한 분야와의 융합을 통해 계속적으로 확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전북대 이노폴리스캠퍼스사업단은 인공지능 포럼, 블록체인기술 관련 포럼을 통해 신기술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앞으로 4차 산업 혁명, 전북연구개발특구 특화분야 포럼을 개최 예정이다. /이상민 기자

## 전주대 박물관, 문광부 지원 전북 최다

전주대학교 박물관이 문화체육관광 부가 주최하는 박물관 지원사업에 전북지역에서 가장 많이 선정됐다.

선정된 사업은 학예인력 지원사업, 교육인력 지원사업, 길 위의 인문학 사업, 국가문화유산 DB화 사업 등 총 4개 부문이다.

길 위의 인문학 사업'은 올해로 5 년 연속 선정된 사업으로 학교 교과 과정과 연계하여 청소년의 인문학적 소앙을 길러주는 박물관 체험 프로 그램이다.

올해는 도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5월부터 11월까지 '선사 문화 체험(활)', '민화부채 민들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지난해에 이어 3년 연속 선정 된 국가문화유산 DB화 사업은 소장 하고 있는 유물의 정보를 제공 및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 구축을 통 하여 효율적인 소장품 관리와 활용 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올해도 소장품 등록 인력의 인건비 지원과 유물 사진 촬영팀이 파견되 어 소장품 사진촬영을 진행하며, 소 장품 정보 서비스 확대로 유물의 정 보가 일반 대중들에게 활발하게 공 유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상민 기자

